



을들의 연대

알바와 사장님,
우리끼리 다들 일은 아닌데...

About, **을들의 연대**

- 최저임금,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비롯해 많은 이슈들에서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를 조장하거나 활용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모두 어려움이 커지면서 충돌이 더욱 격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나 노동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장이 작거나 사용자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부담이 자영업자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노동자의 희생이나 자영업자의 책임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폭넓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끼리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실태와 처지, 노사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왜,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제대로 포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 일반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서로에게 가진 불만과 원하는 점, 상생을 가로막는 개인의 문제와 구조적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 노력과 사회적·정책적 과제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집단회가 앞으로 더 많은 만남과 대화로,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몸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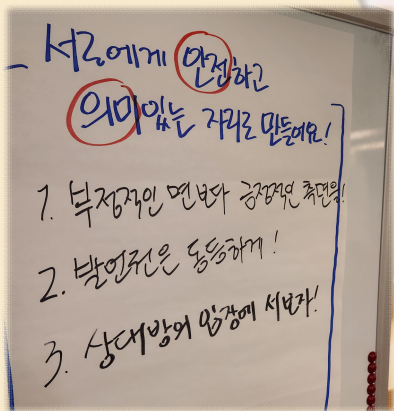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환경. 때로는 상하관계에서 일하기도 하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자기 지위를 잠시 벗어두고 한 공간에서 만났다.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아직은 낯선 공기를 자아내고 있다. 서로 동그랗게 모여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쪽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다른 한쪽에는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앉아있었다.

동그랗게 앉아 어색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는 학생, 청년 네트워크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최근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언젠가는 사장님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최근 사장님과 다투고서 이곳에 오기도 하는 등 여러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모였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사장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소개 이후에는 사장님 소개가 이어졌다.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도, 20~30대 젊은 사장님도 함께 있었고, 모두 개인적으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겪는 문제와 소통의 어려움을 이곳에서나마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참여했다.

소개가 끝난 뒤에는 서로 다른 입장과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오늘 하루만큼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자발적인 약속을 정했다. 약속은 3가지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 두 번째는 ‘발언 시간은 동등하게!’, 세 번째는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정했다.

소개가 끝나고 약속은 정했지만, 낯선 공기는 아직 남아 있었고, 몸을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이 기류가 풀리지 않을까? 모두 낯선 공기 속 긴장한 몸을 풀기 위해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서로 아픈 부위를 스스로 마사지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했다. 비교적 나이가 있는 사장님은 허리와 무릎 관절을, 젊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상체와 목을, 그렇게 이들은 단순한 스트레칭에서조차도 서로의 다름을 마주하고 있었다.



두 번째 순서.

“희망 찾기!”



스트레칭이 끝나고 함께 영상을 봤다. 영상은 아르바이트와 사장님이 어떤 속마음을 가졌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난 뒤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다.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상생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다’와

‘모르겠다’로 나뉘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었고 이들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 각자의 속마음을 물었다.

■ 상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먼저, ‘모르겠다’를 선택한 사람은 개별적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소위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게 로또와 같다고 하면서도 이진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선택을 한 사장님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만나는 게 복불복이고 개인적인 부분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렇게 각자 입장이 있다 보니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상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도나 정책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상생할 수 ‘있어요.’

상생할 수 있다고 말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사람이니 서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한 사장님은 사람마다 개인 성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소통하고 노력하면서 힘든 부분,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 등을 소통으로 최대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했다.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오늘과 같이 열린 자리에 서로 참여한 자체가 상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면 충분히 공감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뉘진 것 같이 상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상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거나 할 수 있거나 모두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상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대부분 작은 매장에서 2~3명이 일하다 보니 구조적인 측면도 분명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측면이나 개인 특성 속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오늘과 같은 공간에서 서로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낸다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오늘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순서.

“함께 나누기!”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자 모둠을 나누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모듬은 4개로 나누었고, 각자 모듬 이름을 정하고 서로 이해하고자 경험을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을 나눴다.

■ 첫 번째 모듬 '비빔밥'

첫 번째 모듬 이름은 '비빔밥'으로 정했다. 처음에는 '김밥'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금 더 재료가 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비빔밥'으로 이름을 정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두 번째 모듬 '넘어'

두 번째 모듬 이름은 '넘어'로 정했다. 행사를 주최한 '너머 서울'에서 착안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서로의 장벽을 넘어서 이해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힘들었던 것보다는 일하면서 서로 즐거웠던 기억을 주로 이야기해서 즐거운 기억을 공유했다.

■ 세 번째 모듬 '캘리포니아 롤'

세 번째 모듬 이름은 '캘리포니아 롤'로 정했다. 첫 번째 모듬과 같이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다만, 김밥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 모두 생각하는 마음이 거의 비슷했고, 우리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공감했다.



■ 네 번째 모듬 '소통'

네 번째 모듬 이름은 '소통'으로 정했다. 상생할 수 있는지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사장님이 함께 소통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런 취지를 담았다. 서로의 의견에 맞춰가고 생각하면서 경험을 공유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네 번째 순서.

“우리는 왜?”

서로의 생각을 조금 더 체감하고 이해하고자 모듬 간 대화를 한 뒤 각 모듬에 같은 과제가 주어졌다. '우리는 왜? 일하면서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각자 역할을 정해 하나의 상황극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상황극 진행이 잘될까 싶었지만, 모듬별로 정말 현실에서 마주할법한 상황극을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여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

■ '캘리포니아 롤' 모듬

상황 설명: 전날 마감 시간에 정리하지 않고 퇴근한 사장님. 다음 날 오픈 준비하러 온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홀에 한숨과 함께 정리하면서 예약 문의도 응대하지만, 중간에 온 사장님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핀잔을 주는데, 알고 보니 예약 문의하고 방문한 손님이 사장님 딸 친구였는데...



사장 딸: **아빠 언제 퇴근했어? 아빠 나 오늘 생일인데, 빨리 퇴근해야 하는거 아니야?**

응.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한숨을 쉬며 정리하지 못한 테이블을 보여 퇴근)

사장: (다음날)

아르바이트: **맨날 정리도 안하고 퇴근해, 짜증나네. (한숨을 쉰다.)**

(전화벨이 울린다.)

아르바이트: **예, 식당입니다.**

손님(친구):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롤 집이죠? 오늘 점심 예약을 하고 싶은데, 추천하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아르바이트: **네, 다 맛있습니니다.**

손님(친구): **아. 네. 저희 2명 예약하고 싶은데, 지금 비어 있는 시간이 몇시에 있나요?**

아르바이트: **2시, 저지 다 가능합니다.**

손님(친구): **그러면 저희 2시 30분에 가고 자리는 분유기 좋은데로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네.**

사장: **(등어요면서) 왜 이렇게 더럽게 해왔어? 오픈 준비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시간이 몇인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르바이트: **어제 마감에도 사장님 제대로 안하고 가신 거 같은데, 그대로..**

사장: **난 사장이고, 사장이 바빠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숨을 쉰다.)**

사장 딸: **안녕하세요.**

어 우리딸? 사장

네 번째 순서.

“우리는 왜?”

■ ‘소통’ 모습

상황 설명: 장사가 잘되는 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아 식당 직원 단톡방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에 사장님이 CCTV 화면을 찍어서 올리면서 업무를 지시하는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이에 불만을 품고 결국에는 그만두는데...

사장: 이거 안챙기고 뭐했어?
저번에도 바트드리더니.

아르바이트1: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단톡방에 사장님이 CCTV 화면을 찍어서 올린다.)

아르바이트1: (한숨을 쉰다.)

아르바이트2: 무슨 일이야?

아르바이트1: 단톡방 안 봤어?

아르바이트2: (핸드폰을 찾으며) 왜?

아르바이트1: 요즘 또 이거 안챙겼다고 CCTV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셨단 말이야

아르바이트2: 또? 맨날 우리 이름도 안 불러주고 애 재 부르고 맨날 CCTV 확인해서 1시간마다 올리시고. 너무 하신 것 같아.

아르바이트1: 그러게, 오늘까지만 하자.



네 번째 순서.

“우리는 왜?”

■ ‘비밀밭’ 모습

상황 설명: 편의점. 토요일 저녁 6시 손님이 많고 바쁜 시기 한 손님이 들어오는데...

아르바이트: 어서오세요. 편의점입니다.

손님: 어이 거기 담배 하나만 줘

아르바이트: 어떤거요?

손님: 저 디스 마이너스 플러스 765 그거

아르바이트: (담배를 집으며) 이거요?

손님: (화를 내며) 아이 그거 말고 왼쪽에 있는 거

아르바이트: (목소리를 올리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님: (화를 내며) 어 이 XX 화내네? 저거 달라고 저거

아르바이트: (담배를 올려 놓는다.)

손님: (여전히 화를 내며) 아 이거 여기 사장 어딨어.

사장: 아아.. 네네 무슨일이세요?

손님: 교육을 어떻게 하는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장사해먹겠어? 아이 안사 안사 갈거야

사장: (연신 사과하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나간 뒤)

사장: (아르바이트를 보며) 왜 샅대질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오면 제각제각 빨리 찾아가고 드려야지

아르바이트: 제 인권이 지금 유린당했는데...

사장: 뭐 이거가지고 인권을 유린당해

아르바이트: 인권 유린이요. 반말하고 약.

사장: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담배 찾고 그러면 되잖아

아르바이트: 담배 빨리 찾았습니다.

사장: 뭘 아가 못 찾아가고 한참 헤매고 있더라.



네 번째 순서.

“우리는 왜?”

■ ‘넌이’ 모두

상황 설명: 백화점 유명 브랜드 입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브랜드 옷 입고 사진 촬영하는 일을 하는데, 관리자와 사장의 말이 다르다?...

관리자	일 잘하고 있어? 후드티 입고 다니지마. 매장에서. 신발 깨끗하게 신고 다녀야할 거 아니야?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저 햇빛이 내리쬐는 강당 앞에서 이 옷이랑 저 백팩이랑 매고 사진을 찍는데, 착샷도 찍고 오늘 스타일은 20대의 영한 사진 찍어서 10장씩 올려 알았지? --- 애니저는 도대체 왜 일을 안하는거야? 너네랑 같이 나가서 말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미리 올리면 내가 컨펌안하면 되잖아? 왜 일을 안하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다들 열심히해 (나간다)	
	오늘 수량 옮겨야 하는데, 놓려왔어? 치아입으면 어떡해? 오늘 사진찍을거야?	사장
아르바이트	사진 찍고 오라고 해서.	
	누가?	사장
아르바이트	--- 애니저가	
	아니 오늘 정리해야 하는데, 다 넣어야 하는데, 이 치아.. 사진같은 거는 마케팅팀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 왜 그런걸 신경쓰는거야?	사장
아르바이트	그안할게요. 안녕히계세요.	



상황극이 끝나고 몇 사람의 소감을 들었다.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언젠가 사장님이 되겠다고 소개했었는데, 상황극을 통해서라도 사장님으로 잠시나마 있어 흥미로웠다고 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여전히 진상(진상 손님 또는 악덕 사장)의 부당한 행동을 상황극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사장님들 모두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할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할을 맡으면서 주눅이 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장보다는 책임감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순서.

“문제해결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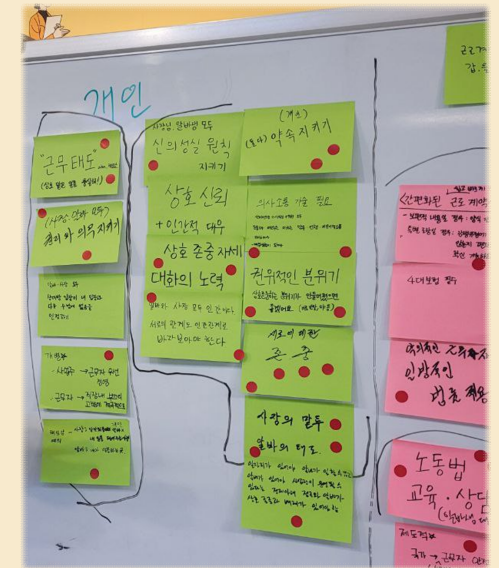
서로 겪은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상황극으로 표현하고 나니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점을 조금이나마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연대한 이들은 앞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서로 적고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 개인적 측면에서 변화와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와 대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호존중’과 ‘신뢰’를 먼저 말했다.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책임감 갖기’, ‘권리와 의무 지키기’, ‘약속 지키기’, ‘말투나 태도, 권위적인 분위기 개선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만들기’,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사장님은 사장님이 자기 근무자가 손님한테 욕먹거나 그럴 때 근무자를 먼저 보호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근무자 사이 갈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본인(사장)에게 얘기해 줬으며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편의점과 같은 작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사장이나 다른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모두 감당(대부분 사장님이 감당)해야 하다 보니 계획된 일정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다섯 번째 순서.

“문제해결을 위해”

■ 제도적 측면에서 변화와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제도적 측면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 아무래도 다들 경험하는 문제가 개인보다는 제도에서 시작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을까? 우선, 현행법을 지켜야 하는 부분과 현행법으로 인해 겪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장님 입장에서 현행법상 지급하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등의 부분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몇몇 사장님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한 사장님은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이 500만 원 가량을 횡령해소 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500만 원보다 적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은 쥐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체불임금과 횡령이 서로 다른 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렇다고 했다. 그과정에서 본인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장님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곳이 우범지역에 있어서 비상벨(인근 파출소와 연결)이 있었지만, 비상벨을 눌러도 때때로 잘못 눌렀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동을 오지 않는 때도 있다고 했다. 또, 본사는 근무자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본사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사장님은 근본적으로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나누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서로가 가져가는 이윤(임금, 이익)은 같은 파이에서 나눠서 가져가는데, 점점 작아지는 파이를 어떻게 하면 키워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사와 수익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사가 제도적 잡질을 해은 부분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순서.

“문제해결을 찾아서”

■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개인적 또는 제도적 변화와 대안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를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한 사장님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실천해야 하는데, 실제로 점주는 노동자 권의 보호를 말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점주의 권의 보호를 함께 말한다면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비추기도 했다.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제도 변화를 위해 지역에서 시민 정책 제안이나 공모전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

“우리. 오늘. 함께”

저는 오늘 기억에 남는 말이 '그냥 다 인간관계다.'
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남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호 존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대하듯 같이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A>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돼서 참 좋은 자리

<참가자 C>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되게 사장님들이 본인 입장을 되게 완고하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희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는 좀 많이 배려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가 경험 얘기할 때 나쁜 경험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해서 이게 나빠야 될지
좀 오락가락했어요. 했더니
같이 계서서 사장님이 그거 기분 나쁜 것 같다고 그렇
게 얘기해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참가자 E>

오늘 참여해서 생각 외로 많은 생각을
더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 G>

저도 기회가 되면 계속 꾸준히 소통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참가자 I>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혼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사장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참가자 B>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받았을 때
서로 되게 좋은 걸 느꼈다.

<참가자 D>

이렇게 사장님과 알바 노동자가 같이 있는 집안에서
처음이어서 되게 재밌게 참여했고요.
집담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체제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활동적인 집담회 처음이라서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 F>

모든 것은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꼈던 거 받았던 감동 이런 것들
생활에 갖고 가서서 잊지 마시고 꼭 간직하셔서
행동으로

<참가자 H>

마지막 순서.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되게 어떤 갈등적인 어떤 목언가 아가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실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가운데서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들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하는 새삼스러운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참가자 J>

맨날 이렇게 가게에서 밖에서 살다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좋네요.

일단 전 출고 이렇게 또 소통의 장소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일단 알바생들의 마음도 많이 읽었고 알바생들도 사장님을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K>

다들 연극하기 전까지 어색해하시다가 어찌면 그렇게 나와서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장님들이랑 알바생들 각자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L>

저는 초반에 모르겠다. 상생이 가능한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조금은 상생할 수 있다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그래서 사실 좀 저 생각이 좀 많이 박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했던 경험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참가자 M>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무모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큰 목소리로 힘쳐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억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참가자 N>

